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 소식지

2018년
여름호



주소 파주시 파평산로389번길 42-19
전화 031-953-1625
팩스 031-953-1626

홈페이지 www.nestofpeace.com
다음카페 daum.net/peacelib
북스테이 bookstaynetwork.com/wp/?page_id=411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의 일기

1.17
-20

4년 만의 서가 정리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평화도서관에 자원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그 덕에 평화도서관은 오래된 책 먼지도 털어내고 재고조사도 이루어졌으며 오랫동안 입력하지 못했던 책들이 제자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인권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배려, 편견, 차별의 주제로 새로운 서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도서관에서 봉사해준 학생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1월은 도서관이 쉬는 달입니다. 하지만 꼭 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조용한 겨울 평품집을 활기차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1.29

전국 북스테이 식구들을 통영에서 만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북스테이를 운영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모색하고 1년간 활동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특히 통영 '남해의 봄날' 책방은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부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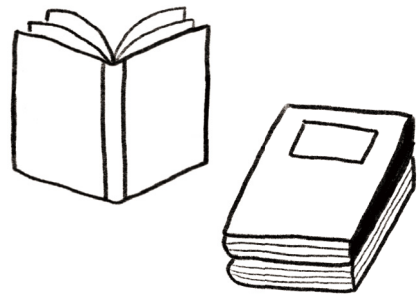
북스테이는 책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모든 여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책과 책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책을 매개로 각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누는 일에도 열심인 사람들이 북스테이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행복한 하룻밤을 선물할 것입니다.

*평화를 품은 집 북스테이 문의 031-953-1625

1.25
-27

우리도 '책보따리' 만들어보려고 광주에서 왔어요!

광주 '책만세평화도서관'과 책방 '숨' 식구들이 왔습니다. 책만세평화도서관은 평품집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광주의 평화도서관입니다. 지난해 11월 책만세평화도서관 워크숍에서 해본 평화 책보따리 맛보기 경험을 밑천으로 평화 책보따리를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평품집을 찾아왔네요. 먼저 어떤 책을 고를지 이야기 나누고, 책이 결정되면 재미와 의미가 가득 담긴 책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합니다. 논의가 끝나면 평화 책보따리 만들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곧 책만세평화도서관에서도 책보따리를 만날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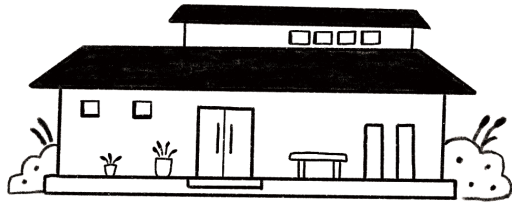
2월은 새로운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2.24

꿈의학교 졸업식

2017년 가을부터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좋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숲에서 만난 많은 꽃, 나무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땀 흘리며 놀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세 계절을 보내며 직접 그려낸 그림, 지어낸 이야기, 깎고 갈아 만든 나무 작품 등을 전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오페라 공연을 결들인 전시회를 열어 그간의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랑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3월은 새싹 싹싹 돋듯이 평화를 맛보러 오는 친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습니다.

3.2 올해 첫 평화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평화도서관이 문을 열고부터 3년 동안 성심껏 참여해주신, 고마운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실무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3.7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장서분과 회의와 지역의 작은 책방 방문
 작년 가을부터 장서분과에서는 동네 책방을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의 알모책방, 행복한책방과 파주의 땅콩문고, 오래된서점을 다녀와 책방과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15 -17 제주4·3 그림책 《나무 도장》 문학기행
 부산 책과아이들, 광주 책만세평화도서관,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제주착한여행사는 2018' 제주4·3 70주년을 추념하면서 권운덕의 제주4·3 그림책 《나무 도장》의 모티브가 되었던 곳을 찾아가는 문학기행을 기획했습니다. 관덕정, 큰넓궤동굴, 빌레못굴, 북촌 너븐송이, 정방폭포, 동광리 삼밭구석 등 제주4·3의 주요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4·3 유족분들에게서 당시 제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3.19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할 다양한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서관 축제와 협력사업, 분과별 활동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21 군포 중앙도서관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 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으로 청소년 북카페 '깔깔깔'의 최향숙 선생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평화도서관 관장인 저는 부회장 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3.24 도서관 내 평화를품은책방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주제별로 책을 전시하고 적극적으로 서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화 선생님이 책방지기로 함께 운영해주시기로 했습니다.



4월은 파주 두포천의 벚꽃이 흐드러져 마을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벚꽃놀이도 하고 책놀이도 하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4.14 마을 주민들과 함께 두포리 밤 벚꽃놀이를 진행했습니다.
 4월 14일부터 시작한 벚꽃놀이는 평화도서관에서 준비한 60년대 밤고지 마을 지도와 사진전,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함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벚꽃놀이가 끝난 뒤에도 한 달 동안 야간 조명을 켜두어 두포리의 밤을 하얗게 밝혔습니다.

4.17 선유어린이집에서 도서관에 나들이 왔습니다.
 그림책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오디오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벚꽃길 산책도 했습니다. 해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이렇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꼭 평화도서관에 나들이를 옵니다.

3.25 학부모 대상 '동네북' 책보따리 강연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보따리를 풀고 책을 읽고 제시한 게임들을 진행하며 책 읽기의 또다른 재미를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정굴 답사가 있었습니다.
 평화를품은집 제노사이드 공부 모임인 평화길찾기 모임에서는 12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금정굴 답사가 있었습니다. 금정굴은 한국전쟁기,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을 했다고 의심받은 사람들을 재판 없이 불법 처형한 민간인 학살터로, 지금까지 153구의 유골과 4백여 종의 유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3.26 경주 사랑방소재에서 북스테이 번개모임을 가졌습니다.
 경주답게 한옥으로 지어진 디글자 집 앞마당에서 강화의 국자와주걱, 헤이리의 모티브원, 남해의 봄날, 괴산의 숲속작은책방 등 전국의 북스테이 멤버가 모여서 그동안의 활동과 11월에 있을 '오키나와 다크투어'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주의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봄꽃도 즐긴, 눈과 마음이 풍족한 여행이었습니다.



4.25 -26 25일 파양초등학교 4-6학년 친구들이, 26일 용미초등학교 5-6학년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도서관에 온 친구들과 《평화 책》, 《나무도장》을 읽고 평화를 주제로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었습니다. 팝업북에 각자가 읽은 책 내용이나 《나무도장》 내용 등을 자유롭게 담아내 보았습니다. 만들기도 즐거웠지만 나만의 평화를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26 운정·교하 지역 교장선생님들이 다녀갔습니다.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을 둘러본 뒤, 그림책 《나무도장》을 읽고, 영상으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평포산에 올라 영초가 피어 있는 숲속을 거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26 《나무도장》과 함께한 제주4·3 평화캠프 1박 2일

아름다운 섬 제주! 푸른 바다, 울레길, 한라산, 오름들……. 어딜 가나 눈이 즐겁고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섬 제주 곳곳에 아픈 사연도 가득하고 기름 냄새 진동하는 제삿날도 많습니다. 올해로 제주4·3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맞춰 평화로움은집 평화도서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권윤덕 작가의 제주4·3 그림책 《나무도장》을 읽으며 1박 2일 동안 제주4·3 평화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947년 3·1절 기념식 때 관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한 북촌리 너븐송이 애기들무덤에 묻힌 애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라진 동광리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큰뽕궤동굴과 빌레못굴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평화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책 속 주인공 열한 살 시리와 함께 책 그림과 사진, 동영상 속으로 들어가 제주4·3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29 평화가족이 모였습니다.

올해 처음 가진 만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삼삼오오 만난 친구들이 반가웠고, 가족 모두 올해 계획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얼마 전 제주4·3 문학기행을 다녀온 그림이네가 여행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뒤엔 모르는 이야기였다며 놀랐답니다. 다시 한 번 제주4·3 그림책 《나무도장》을 읽고 난 뒤 모두 함께 미니 팝업북을 만들고 도장 만들기도 했습니다.



5월은 평화로움은집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방문이 있었습니다.

5.5 어린이날 행사 ‘슬렁슬렁 놀자’

해마다 어린이날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고민스러운 분들이 평화로움은집을 찾았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슬렁슬렁 놀자’는 엄지선 선생님의 제안으로 밤꽃이 놀자숲 놀이터와 평화도서관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도서관서가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은 뒤 아주 조그만 나무책을 만들었습니다. 예쁜 손톱만 한 나무 그림책이 앙증맞았습니다. 밤꽃이 놀자숲 놀이터에서는 꽃이 한창인 숲속에 들어가 꽃과 풀과 나무를 보고 그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5.15 월롱초등학교 5-6학년 친구들이 왔습니다.

처음 오는 친구들이라 평화로움은집 소개와 제노사이드 자료관, 평화도서관 등 각 시설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동생이나 친구에게 신체의 생김새로 놀린 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놀림이 반복되면 놀림 받은 사람이 아프거나 괴로울 수 있으며 결국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 6학년생들이라서 그런지 제법 진솔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5.16 ‘사람책, 작은도서관을 이야기하다’ 첫 강좌

파주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람책, 작은도서관을 이야기하다’ 첫 강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서관을 처음 시작했던 2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17

선유유치원에서 가족이 함께 와서 도서관과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저마다 따로 책을 읽은 뒤 손바닥 그림책을 함께 읽었고, 밤꽃이 놀자숲 놀이터에서는 손수건에 나뭇잎이나 꽃잎으로 염색도 하고 썩개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5.20

2018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금촌역 광장에서 평화·인권 주제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평화롭음은집도 참여하여 3개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제노사이드 자료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이주민 참여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주4·3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나무 도장》을 읽을 수 있게 전시했습니다. 책을 읽은 분들에게 제주4·3 70주년 상징인 동백꽃을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어린이는 《나무 도장》을 30분 넘게 꼼꼼히 읽고 나서 이런 사실이 한국에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고, 제주에서 오신 어르신 한 분은 정말 아이들에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책이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부스에서는 《평화 책》으로 팝업북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고충 상담을 하는 부스부터 각국의 전통의상과 악기, 장신구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까지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마련돼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5.24
-25

담양 한빛고등학교에서 올해도 통일기행의 하나로 평화롭음은집을 방문했습니다.

24일은 학생들과 DMZ 안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에 가서 명연파 집장님이 문산의 임시 포로수용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수용소와 소년 포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25일엔 평화롭음은집 안에 있는 세계의 다양한 제노사이드 자료를 찾아 스스로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이 조사한 제노사이드 사건, 관련 책,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아마도 제노사이드에 대해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5.25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강원통일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통일기행에 참여한 평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언덕길을 씩씩하게 걸어 올라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공감하시며 한분 한분 앞으로 나와서 그림책을 읽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지역에서 책 읽어주는 활동을 하신답니다. 열심히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해주시기도 하며 세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가셨습니다.

5.30

파양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평화 책》팝업북 만들기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 없이 내 안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다처럼 풀며 하는 체험입니다. 친구들끼리의 우정도 참 특별했고, 구수한 빵 냄새에 유혹된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빵을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도, 빵을 사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모습도 꼭 다정해 보였습니다. 행복한 친구들에게 평화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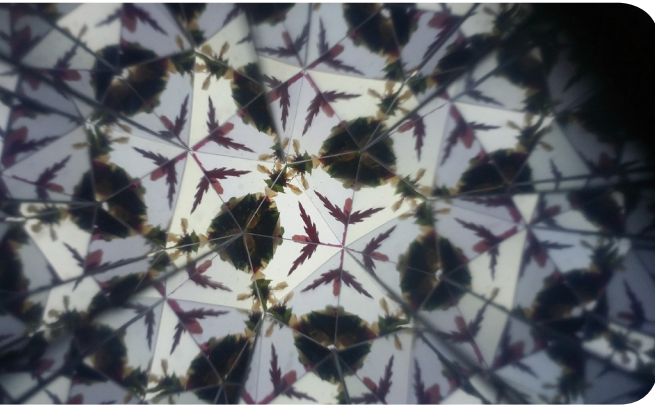
6월은 부산한 마음으로 상반기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열심히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6.2

토요 가족 프로그램(파평초등학교)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평포산을 올랐습니다. 햇빛이 짙은 날이어서 산을 오를 때는 다들 땀을 뻘뻘 흘렸지만, 그 덕에 정상에 올라 북한 땅을 보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평화롭음은집에 돌아와 '통일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스트잇에 써서 폼보드에 붙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파평초 학부모회에서 준비해주신 아이스크림을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만화경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재료를 압화로 해서 어른들도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과 남이 만든 것을 서로 바꿔 보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모이는 요즘 동네북 모임

평화마을책방 소식

요즘 동네북 모임에서는 책놀이 활동가 양성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교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엄마 힐링 숲놀이터 수업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 금요일이면 평화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재미있답니다. 아차! 그리고 이번에 모임장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화이팅!

4월에는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책놀이 활동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모임원들에게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심화교육을 받습니다.

*2018년에는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3월 24일, 평화마을책방 안에 있던 작은 책방이 새롭게 단장하여 '평화마을책방'으로 거듭났습니다.

책방에는 주로 계절에 친구처럼 읽을 수 있는 책, 누군가 문득 생각나서 주고 싶은 책을 가져다 놓으려 합니다. 도서관을 찾는 분들의 휴식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희 평화마을책방의 특징을 살려 평화를 주제로 한 책들을 사건별, 계절별, 주제별, 단계별로 쉽게 찾아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3, 4월의 책

봄봄, 새로운 시작과 나를 들여다보는 책

알레나의 채소밭(소피 비시에르 글·그림) / 흰 눈(공광규 글, 주리 그림) / 민들레는 민들레(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 / 똑똑 봄바람(송현주 글·그림) / 봄이다!(줄리 폴리아노 글, 에린 E. 스테드 그림) / 호랑이 씨 숲으로 가다(피터 브라운 글·그림) / 누가 진짜 나일까?(다비드 칼리 지음,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 나, 고릴라 그리고 원숭이 별(프리다 닐손 지음, 울프 K. 그림) / 고약한 결점(안느 가엘 발프 지음, 크실 그림)

일제강점기와 제주4·3 이야기 만나기

마사코의 질문(손연자 지음, 김재홍 그림) / 덩기머리 탐정 김영서(정은숙 지음, 이영림 그림) / 김금이 우리 누나(장경선 지음, 김은주 그림) / 검은 태양(장경선 지음, 장경혜 그림) / 나무 도장(권윤덕 글·그림) / 모르는 아이(장성자 지음, 김진화 그림) / 한라산의 노을(한림화 지음) / 순이 삼촌(현기영 지음)

5, 6월의 책

새로운 나와 만나는 여행

여기보다 어딘가(거스 고든 지음) / 긴 여행(프란체스카 산나 글·그림) / 할머니의 여름휴가(안녕달 글·그림) / 열일곱 살 자동차(김혜영 글, 김효은 그림)

광주 5·18과 한국전쟁

엄마에게(서진선 글·그림) / 나는 아직도 아픔입니다(최유정 글, 이흥원 그림) / 운동화 비행기(홍성담 글·그림) / 오늘은 5월 18일(서진선 글·그림)

제무시(임경섭 글·그림) / 어느 물푸레나무의 기억(최용탁 원작, 박건웅 만화)

*앞으로 평화를 주제로 어떻게 첫발을 떼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평화마을책방'을 찾아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책을 판매하는 책방이 되겠습니다. *평화마을책방 밴드에 가입하시면 책방 책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6.5 장파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미니 팝업북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6.7 월릉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평화 책》 팝업북 만들기를 했습니다.

6.9 경기창조고등학교 학생들이 28명이 왔습니다. 오전에는 평화마을책방에서 모듬별로 주어진 제노사이드 관련 카드를 각자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내용도 무척 알차습니다. 오후에는 명연파 집장님과 평화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6.12 월릉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왔습니다. 지난번 3, 4학년 친구들이 왔을 때 평풍 소극장에 인원을 너무 많이 수용하여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극장과 도서관 중간층으로 나누어 여유 있게 《평화 책》 팝업북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6.21 광주 우리민족 아이들이 방문했습니다. 5, 6학년 아이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37명씩 평화마을책방에 찾아왔습니다. 첫 방문이라 시설 안내와 제노사이드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평풍집 소개 동영상과 단편영화 2편을 상영했습니다. 영화 관람 후 제노사이드 역사관과 다락갤러리, 소극장, 평화도서관을 자유롭게 구경하는 시간을 가진 뒤 《평화 책》 팝업북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뒷정리도 스스로 잘해서 많은 인원이었지만 손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6.26 금화작은도서관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장맛비를 뚫고 평풍집에 왔습니다. 16명의 어른은 소극장에서 책보따리 수업을 진행하였고, 11명의 아이들은 《평화 책》 팝업북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젖기도 하고 눅눅하기도 했을 텐데 해가 뜨거워서 무더운 것보다는 날을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6.27 다산중학교 학생들이 '독서바람열차'를 탔습니다. 홍대에서 그림책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의 작가인 이영아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독서바람열차를 타고 평화마을책방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평화마을책방 소개 영상을 보고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도서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28 파양초등학교 3학년 12명이 다녀갔습니다. 3학년이었지만 아주 의젓하고 담임 선생님도 잘 도와주셔서 《평화 책》 팝업북 만들기 체험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배려'를 주제로 북 큐레이션에 참여하고,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 포스트잇 붙이기, 책 읽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4·3 그림책 《나무 도장》문학기행

광주 숨 책방 이진숙 글



제주4·3 70주년 문학기행을 다녀오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노을은 진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인 나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왜 그리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을까. 어느 존재나 부족함이 있지만 나름의 생존 법칙 안에 어우러져 살아가기에 생각지 못한 조화와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인데, 초록별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 한 종(種)인 인간은 왜 서로 상처주고 깨부수고 망가뜨리기를 반복하는 걸까. 답 없이 지독한 상념이 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제주도는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숲이나 오름, 바다나 올레길, 그리고 검은 돌담으로 둘러쳐진 밭과 옛스런 동네까지. 이국적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합니다. 육지 사람들은 잊곤 하지만, 마을마다 신비로운 신화와 역사를 품고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사람들이 살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4·3 발생 70년’이 되는 올해, 일명 다크 투어(Dark Tour)로 다녀온 이번 여행은, 권윤덕 작가의 《나무 도장》(평화롭음책, 2016)의 이야기를 따라 제주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평화롭음집, 부산 책과아이들, 광주 책만세평화도서관, 동네책방 숨 등 나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도서관 활동가들이 함께했고, 여행을 위해 돌아볼 곳을 선정,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나무 도장》을 출판한 평화롭음책과 공정여행을 주제로 운영되는 제주책

한여행사가 담당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권윤덕 작가, 강중훈 시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가는 곳곳마다 유가족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제주4·3 사건을 정리해놓은 제주4·3 평화공원과 4·3 사건의 불씨가 되었던 관덕정을 비롯해 《나무 도장》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던 빌레못동굴, 동광리 큰넙귀동굴, 《나무 도장》그림책 전시가 열리고 있는 너븐숭이 기념관과 북촌마을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제주항 여객터미널 건너편 당시 수용소였던 주조공장터와 선인장이 아름다운 마을 월령리의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 삶터, 대를 이어 얽힌 학살의 아픔이 전해지는 성산리 터진목 등 주요 4·3 유적지를 따라가며, 제주4·3 사건을 둘러싼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날의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광지로만 알려졌던 정방폭포가 서귀포 일대 최대 학살터였다는 사실, 제주 전역에 걸쳐 확인된 109개의 ‘잃어버린 마을’에서 살아남은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지 않고 그 주변 동네에 흩어져 사는 속사정들, 제주교 육청과 지역 행정기관마다 4·3 담당 장학사와 지원과가 있다는 것 등 새롭게 혹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여러 사실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방문한 제주’는 더 이상 아름답기만한 예전의 제주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 마을 이야기로 더 깊어 갔습니다.

제주4·3 70주년을 맞는 제주의 분위기는 다소 들뜬 듯 보였는데, 촛불 정권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여년 만에 추념식에 참석하기 때문이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기 때문인 듯싶었습니다. 여행 첫날, 첫 방문지인 제주4·3 평화공원에 도착했을 무렵엔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비가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제주4·3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하나씩 받아 가슴에 달고 축축해진 차림으로 들어선 전시관. 입구가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어서인지 날씨 탓인지, 구부러진 길을 돌아 들어가는 동안 답답하고 음습한 기분이 들었지요. 갑자기 굴뚝마냥 천정이 높이 솟아오른 방이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는 동그란 구멍의 창이 나 있어 환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는 꽤 길다란 돌비석이 가로로 누워 있더군요. 아무 장식도 글씨도 없는 백비. 제주4·3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 평화공원을 방문한 이들은 꼭 보게 되는, 누워 있는 비석. 안내하는 해설가는 제주4·3이 ‘사태’에서 ‘사건’으로 글자 하나 바뀌었을 뿐, 아직 어떤 공식적인 이름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써넣을 수 없고, 그렇기에 비석을 세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행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든 이름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제주4·3 사건이 이름을 갖지 못한 채 70년이나 지난 이유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미군정 시대에 발생한 일이었고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기도 합니다. 역사에는 늘 원인과 결과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지만, 제주4·3은 제주 전역에 걸쳐 엄연히 존재하는 피땀 어린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분명히 나눌 수 없는 사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이름을 갖는 것도 이리 어려웠구나 싶더군요. 7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매듭인 것입니다.

토벌대에게 나머지 가족을 살리고자 숨어 있던 20대 아들을 자수시켰지만 결국은 죽게 만든 아버지가 곧 산사람(무장대)에게 죽임을 당한 일, 수용소였던 주조공장터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몇십 년을 찾아 헤매다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는데, 도움을 준 이웃이 알고 보니 당시 토벌대와 함께 그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이었던 것, 난데없이 날아온 총알에 아래턱을 잃어 30대 꽃다운 나이부터 홀로 삶을 감내해야 했던 무명천 할머니가 몇십 년 만에 사건 현장인 고향 마을을 찾아 그제서야 속마음을 괴성과 울음으로밖에 토해낼 수 없었던 영상을 보면서는 결국 모두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고 모두 다른 양상으로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954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3만 명의 제주도민(당시 인구의 10%)이 죽어간 이 참사는 그래서 아직도 짙은 아픔으로 남아 있는, 이제 겨우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된 굴지도 못한 상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주의 역사는 더 이상 그들만의 상처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광주 오월도, 세월호 참사도, 아직도 여전한 이념의 갈등도 이제는 좀 더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게 되었습니다. 권윤덕 작가의 《나무 도장》에는 그 시절 목숨을 건진 시리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로부터 나무 도장을 물려받으며 묻혔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삼촌이 사실은 시리의 친엄마를 총살했던 경찰이었으며, 아가였던 시리를 살리고 길러준 엄마와 삼촌으로 인해 매년 시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친엄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동굴로 찾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소녀 시리를 통해 가해자이지만 생명의 은인이 된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갈등과 원한, 아픔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상적인 외침일 뿐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는 가담키나 할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권운덕 작가는 “인간은 어느 한 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달리는 기차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 길에서 한 쪽은 10명이 죽고 한 쪽은 1명만 죽는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그러면 모두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고심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죽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할 일은 모두가 사는 방법을 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자각으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라며 나직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작가 권운덕은 3년여의 시간을 통해 답사와 인터뷰, 철저한 고증과 모니터링을 거쳐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재현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현장에서도 끝내버릴 수 없었던 실낱같은 희망을 간결한 글과 제주의 풍광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평화로움은 책 출판사는 이 책을 “문학과 예술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또다시 이런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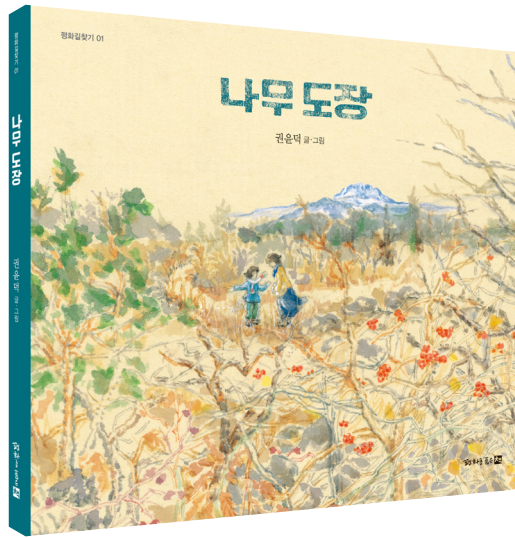
사가 되풀이되려 할 때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을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광리에 가면 큰넓게동굴이 있습니다. 《나무 도장》의 소녀 시리가 아가 때 엄마와 함께 숨었다가 홀로 살아남은 곳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그곳을 안내해주시신 마을 해설가 홍춘호 할머니는 당시 11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그 동굴에서 40일이나 숨어 지냈던 분입니다. 동굴에서의 삶은 어떠했는지 ‘잃어버린 마을’이 된 고향 무등이왓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 현장은 어떠했는지 생생히 증언해주시며 연신 “어휴, 그때 고생한 거랑 무서운 것은 말도 못해.”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손주들한테도 4·3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래도 오래 살다보니 좋은 날도 보네.”라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왠지 나이 든 시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에 매여 있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긍정하면서 살고 있는 힘찬 시리.

우리 일행은 가는 곳마다, 동굴 앞에서 위령비 앞에서 애기무덤 앞에서 없어진 마을 입구에서 소주 한 병 올리고 묵념을 했습니다. 겨우 그것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숨이 절로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학살의 현장은 가는 곳마다 어찌 그리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마지막 날 방문한 성산 일출봉 앞 터진목 학살터 역시 푸른 바다와 성산 일출봉의 빼어난 자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봄의 바람이 불었지만 완연히 부드러운 햇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해녀들의 물질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곳을 돌보고 있는 70대 중반의 강중훈 시인은 4·3 사건의 피해자로 가족 8명을 잃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시 고향에 터 잡고 섬의 아픔을 문학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지 알 수도 없고 이젠 돌이

킬 수도 없다면, 무엇으로 이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갈등과 원한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라며 제주4·3을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로의 시인은 ‘백비’는 이름을 새기지 않은 채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주4·3을 더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나무 도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와 삼촌이 시리를 돌보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사연 담긴 나무 도장을 건네준 것은, 다음 세대에게는 아픔이나 원한보다는 사랑을 누리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힘이나 권력, 풍요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다움, 생명,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닐까요. 질문이 많아지는 봄이 왔습니다.

*위 글은 <전라도 닷컴> 4월호에 실린 내용으로, 허락을 받아 게재한 글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 제주4·3 사건,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
권운덕 글·그림 (평화롭품은책, 2016)



[할머니의 4·3 이야기를 듣고]

홍준호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홍준호 할머니? 저는 지난 3월 어느날, 할머니의 증언을 감명깊게 들었던 11살 박 그림이에요. 할머니께서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사진촬영도 해었는데... 제주도의 날씨는 어떤가요? 바람이 아주 거세던데, 몸보신 잘하세요. 우연히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도 할머니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되요. 특히 40일 동안 동굴안쪽에 숨어있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제는 마음놓고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래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고, 4·3이야기를 많이 많이 전도해주세요용



안녕히 계세요!

2018. 4월 박그림 올림

추신

저는 평화롭품은 집에서 친구들에게 4·3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평화를 품은 책 출판사 소식

《운동화 비행기》 원화 전시회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품은 홍성담의 5·18 그림책 《운동화 비행기》 원화 전시회가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있었습니다.

1980년 오월 광주. 계엄군의 총칼과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난 넉넉한 마음, 강철 같은 용기 그리고 민주주의. 이날 시민들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운동화 비행기》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 만든 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월 항쟁의 정신을 돌아보며, 지금 다시 운동화 비행기를 타고 그날로 날아오를 때입니다. _작가 홍성담

2018 인문학당 강연1 ‘제노사이드와 문학’

5월 12일, 오세웅 교수님이 ‘제노사이드와 문학 - 세계 문학 속의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날은 비가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오신 분들은 함께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라별로 홀로코스트가 다루어진 책이나, 책이 영화화된 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비평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작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인문학당 강연2 - 한국전쟁기 포로들 1, 2강

6월 23일, 오전에는 한국전쟁기 소년병 포로들, 오후에는 한국전쟁기 여성 포로들이라는 주제로 모두 2강에 걸쳐 전갑생 선생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전쟁 당시 가장 약자였던 소년병들의 생존 스토리와 생생한 사진 자료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두강 중 한 강의만 듣고 가신 분도 있었지만, 강의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으며 많은 분들이 만족해주셨습니다.



새책 소식



고양이 나무
오사다 히로시 글
오하시 아유미 그림
황진희 옮김

고양이를 떠나보낸 뒤, 할머니의 마음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 고양이 나무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적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언젠가 소중한 존재의 죽음을 경험할 아이들에게 전하는 보통의 이야기이자 가슴 따뜻해지는 생명의 소중함이 담긴 책입니다.

